

빚통 수업... 교실은 '헉헉'

냉방 시설 없어 '폭염 비명' 광주·전남 18곳 단축 수업

“더워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시설이 없는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낮에는 아예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복도의 정수기 냉수는 채우기 무섭게 비어갔다. 광주지역의 경우 인문계 고교는 대부분 교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지만, 전문계 고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교실은 거의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34.5도까지 오른 10일 오후, 광주 C중학교 3학년 교실은 5교시가 진행돼야 했지만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불볕더위에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교사가 비디오투영기를 돌려 놓고 학생들에게 숙제 숙성을 시켰다. “더워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 교실은 그나마 교무실 에어컨 바람을 잠시 쉴 수 있지만 학생들은 안쓰러운 정도”라고 말했다.

광주 J중의 한 교사는 “최근 교실마다 50인치 대형 TV를 설치했는데 학생들이 TV는 필요 없으니 에어컨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며 “쉬는 시간이나 청소 시간이면 에어컨이 나오는 교무실에 웅무도 없이 괜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 시내 초·중·고교 교실 1만7천131곳 중 절반에 가까운 8천377곳(48.9%)이 아직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절반 이상 교실에 에어컨이 없어 더위에 무방비 상태다. 빚통 교실은 중학교 4천425곳 중 53.2%인 2천354곳, 초등학교 8천25곳 중 57.5%인 4천616곳에 달한다.

에어컨이 있는 곳은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이다. J중 행정실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냉방온도를 21~22도에 맞춰는데 올해는 전기료 때문에 24~25도로 올렸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10일 광주여상, 송원여상 등 고교 2곳, 주월중, 삼무중, 상일중, 무등중, 동신중, 금구중, 비야중, 하남중 등 중학교 8곳, 두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올라간 10일 오후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광주 모중학교 학생들이 빚통더위에 기진맥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초, 각화초, 유촌초 등 초등학교 3곳 등 광주지역 13개 학교가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광양 진원 초, 가야초, 광양여중, 광양중동중, 광양중 등 5개 학교가 단축수업을 했다.

광주·장성 일부 태국인 근로자 신종 마약·대마 상습 흡연

15명 구속·35명 입건

광주와 장성의 공업단지외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일부 태국인 근로자들이 신종 마약인 '야바'와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태국인 근로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해 이 중 15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경합과 동포되지 않은 나머지 79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인물을 찾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국민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장



인화학교 前 교장·교사 항소심 집유

장에 학생들을 교내에서 성폭행 또는 성추행해 법정 구속됐던 광주 인화학교의 전 교장과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교법 형사1부는 10일 장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인화학교 교장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에 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박모(61)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 징역 10월에 집



“경찰 알려면 죽인다”에 수사협조 거부

○자녀남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으나 가족들이 경찰의 수사를 거부해 경찰 100명이 비상대기하는 등 한바탕 소동.

비 예보 빛나가... 당분간 빚통더위 계속

곳곳서 일사병 환자

광주·전남 일부지역의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당분간 빚통더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36~37도까지 육박했던 불볕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후 광

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내리진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해제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광양시, 순천시 등 5개 지역에 내리진 폭염경보를 해제하고 폭염주의보로 대체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10일 발일을 하던 이모(69·광주시 남구 진월동)씨와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손모(43)씨가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일사병 증세 환자도 잇따랐다. 최고 37도까지 올랐던 이번 더위는

여천NCC 임직원 비자금 조성 조사

여천NCC의 공동 대주인 대립산 업과 한화그룹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여천NCC 임직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 검사)는 여천NCC가 수년 전 발전기 증설 공사 과정에서 모 업체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시설을 공급받으면서 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할머니 생신 축하 왔다 네살 여아 참변

네살바기 여자 아이가 할머니 생신 축하를 위한 가족모임을 왔다가 1t 화물차 짐칸 문에 이마를 다쳐 숨졌다.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장동동 할머니 A(55)씨의 집 앞 마당에서 놀던 K모(4·경기도 수원시)양이 실신해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33)가 119 구조대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일 만에 숨졌다. 당시 K양의 아버지는 화물차 옆에서 세차를 하고 있었으며, 할아버지는 축하에서 소 여물을 주고 있었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36분 광주시 서구 H아파트에 사는 윤모(여·40)씨의 집에 “아들(15)을 납치했으니 현금 250만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왔다는 것. ○“놀란 윤씨는 서울에 사는 언니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황급히 전했고 윤씨의 언니는 곧바로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는데, 납치의심사건을 통보받은 광주서부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가족들은 “경찰에 알려면 아들을 죽인다고 했다”며 수사협조를 거부. ○“조사 결과 이 납치의심 전화는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됐으며 윤씨의 아들은 이날 친구들과 놀다 받듯게 무사히 귀가.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부채는 돈의 반대 방향입니다 www.tuajagood.com

아직도 고가의 온돌침대를 목돈으로 구입하십니까?

할부식 판매서비스 - 월평균 50,000원 - 60,000원대(무이자 36회 까지)

보상판매실시 온돌침대를 구입 시 현재 사용하는 침대(메트리스)를 보상판매 (1만원 50,000원 원가 100,000원 2만원 100,000원 4만원 100,000원)

1 국내 최대 최초로 온돌로 판매처를 확대한 할부식 판매에 도전합니다.

2 온돌로 승부하고 가격으로 할부로 드립니다.

3 기존에 구입하셨던 하한가 판매 서비스도 드립니다.

ANYCHE CHAIR

기술과 인간을 바탕으로한 피차 전문 상담업체 - 유엔에시비

Anych

TEL. 062)961-9994